

제 4 교시

심층해설(深層解說)

빠른 정답

1	2	3	4	5
③	②	②	⑤	③
6	7	8	9	10
③	④	④	②	④
11	12	13	14	15
①	①	③	③	④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⑤

1. 메타 윤리학의 규범 윤리학 비판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오답 선지들에 힘을 세게 줬지만 정작 정답을 찾기는 쉬운 문항.

[제시문 분석] ‘나’는 윤리학의 주된 과제가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에 있다고 보는 메타 윤리학의 입장에 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의 핵심 과제가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하여 인간의 삶을 안내하는 데 있다고 보는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 있다.

[선지 분석] ①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이 실천적 원리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는다.

②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이 탐구 과정에서 주관적 이해(理解)를 배제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는다.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의 탐구가 가치 개입적인 것임을 인정하지만, 규범 윤리학 역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하는 학문으로서 윤리학이 탐구 과정에서 주관적인 이해를 배제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③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에 대한 탐구가 가치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반면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추론에 대한 윤리학의 탐구가 가치 개입적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④ 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를 이루는 개념들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간과하지 않는다. 도덕적 논의를 이루는 개념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을 윤리학의 주된 과제로 보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지만, 규범 윤리학 역시 이러한 메타 윤리학의 탐구 결과를 활용해 도덕 원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⑤ 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간과하지 않는다. 메타 윤리학이 도덕 판단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에 관심을 가지는 데 반해 규범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윤리적·규범적 타당성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2. 에피쿠로스와 불교의 죽음관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에피쿠로스와 불교의 죽음관에 대한 구체적 맥락을 이해하자.

[제시문 분석] 갑은 삶과 죽음이 모두 고통이므로 둘을 분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불교, 을은 인간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에피쿠로스이다.

[선지 분석] ① 불교에 따르면 살아 있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② 불교에서는 현세에서의 인간의 행위가 내세를 결정한다고 본다. 현세에서 선업(先業)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입장에서 삶과 죽음의 순환이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③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좋고 나쁨의 판단은 감각에 의존한다.

④ 에피쿠로스는 살아 있을 때는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고 나서는 감각이 소멸되었으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본다. 경험은 감각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이다.

⑤ 불교와 에피쿠로스 모두 죽음이 인간 신체의 구성 요소가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오온(五蘊)의 해체로,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원자의 해체로 본다.

3. 사랑에 대한 프롬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제시문과 선지는 조금 난도가 높았지만, 프롬이 사랑을 수동적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핵심만 알고 있었다면 쉬웠을 것이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가는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몰입하고 상대방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상대방과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프롬이다. 프롬은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강조한다.

[선지 분석] ① 프롬은 사랑을 상대방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돌보는 것이라고 본다.

② 프롬은 사랑이 능동적 활동이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고 본다.

③ 프롬은 사랑이 무한한 것이라고 본다. 물질에는 더는 줄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사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프롬의 생각이다.

④ 프롬에 따르면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포기하고 빼앗기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⑤ 프롬은 사랑을 통해 둘은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둘로 남을 수 있다고 본다. 사랑은 각자의 고립감을 극복하게 해 주지만 그렇다고 각자의 고유성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4. 다문화에 대한 동화주의와 국수 대접 이론의 입장 비교하기 정답 ⑤

COMMENT 주어진 제시문에 충실하기.

[제시문 분석] 갑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주민이 자기 문화를 포기하고 주류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을은 주류 문화를 사회의 기본적 문화로 두되, 이주민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보호할 때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갑은 동화주의, 국수 대접 이론에 가깝다.

[선지 분석] ① 갑,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다.

② 토론의 내용과 무관하다.

③ 갑, 을 모두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다.

④ 갑, 을 모두 동의할 내용이다.

⑤ 갑은 동의하고 을은 동의하지 않을 내용이므로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하다.

5.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순자는 공자나 맹자와는 좀 다른 독특한 유교 사상이므로 그 특징을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제시문 분석] 갑은 예(禮)를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차등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 순자, 을은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이 백성이 도덕적 삶을 사는 기반이 된다고 보는 맹자이다.

[선지 분석] ㄱ.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본다.

ㄴ. 순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으로 구분하고, 덕에 능통한 사람이 정신노동에 종사하여 육체노동자를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각 분야에서 가장 능통한 사람이 각 분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덕에 능통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스려야 한다. 순자에 따르면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禮法)의 핵심이다.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道)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순자는 도에 정통한 사람,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 다스리는 일을 맡아야 한다고 본다.

ㄷ. 맹자를 비롯한 유교 사상가들은 일반적으로 공자의 정명(正名) 사상을 공유한다. 각자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ㄹ. 순자와 맹자 모두 유교 사상가로서,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직업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6. 불교 사상과 도가 사상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거저 주는 문항. 기본 개념으로 풀면 된다.

[제시문 분석] (가)는 모든 만물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는 불교 사상, (나)는 사물에 대한 상대적 분별에서 벗어나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성을 인식할 것을 강조하는 도가 사상이다.

[선지 분석] ①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삼독(三毒)은 탐(貪)·진(瞋)·치(癡)로, 고통의 원인이다. 불교 사상에서는 삼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② 불교 사상에서 말하는 무지(無知)는 만물의 상호 의존 관계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로, 벗어나야 할 대상이지 추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③ 도가 사상에서는 시비선악, 선악미추 따위의 인위적인 분별에서 벗어나 도의 자연스러움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다.

④ 도가 사상에서는 인의의 수양이 타고난 자연적 본성을 훼손한다고 본다.

⑤ 불교 사상만의 입장이다. 도가 사상에서는 인연생기설을 주장하지 않는다.

7. 배아 복제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생활과 윤리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력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시문 분석] (가)는 배아 복제가 인간의 삶에 유용하므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주장을 삼단논법으로 정리하면, 대전제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는 허용되어야 한다.”일 것이다. 결론이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이므로, 소전제인 ㉠은 “배아 복제는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연구이다.”일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한 반론으로는 “배아 복제는 인간의 삶에 도

움이 되는 연구가 아니다.”라는 내용이 적절하다.

[선지 분석] ① 배아 복제 기술의 응용이 인간의 수명 연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배아 복제가 인간의 삶에 유용한 연구라는 주장의 근거이다.

② 배아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므로 목적보다는 수단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은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이다.

③ 배아 복제를 통한 새로운 치료법이 막대한 경제적 효용을 가져온다는 것은 배아 복제가 인간의 삶에 유용한 연구라는 주장의 근거이다.

④ 배아 복제의 허용이 결국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져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은 배아 복제가 연구가 인간의 삶에 유용한 연구가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삶에 해로울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이다.

⑤ 인간이 아닌 배아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은 배아 복제를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이다.

8.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형벌론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무난한 문항이라고 생각한다.

[제시문 분석] 갑은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형벌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베카리아, 을은 살인범이 사회 계약의 위반자로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보는 루소, 병은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이 선형적으로 정초된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른 정당한 형벌이라고 보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베카리아는 형벌이 사회 계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것은 베카리아가 보기에 사회 계약의 당사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생명 유지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이 국가에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할 리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는 사형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며, 사형은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률과 모순된다는 것이 베카리아의 생각이다.

②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모든 계약 당사자의 동의에 따라 체결된 것이다. 살인범 역시 사회 계약의 당사자로서 사회 계약에 참여한 자이다. 루소도 베카리아와 마찬가지로 사회 계약 당시 모든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생명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살인 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데 동의한다. 훗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살인자 역시 사회 계약 당시 살인범을 사형하는 데 동의한 자이다. 그러므로 루소의 입장에서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살인범 본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한 것이다.

③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이 범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져야 하며 형량의 기준은 저울의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동등성의 원리만이 공적 정의의 표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칸트의 입장에서 사형은 살인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으로서 공적 정의의 표준에 부합하는 형벌이다.

④ 루소만의 입장이다. 루소는 살인범이 사회 계약 위반자로서 사회 구성원에서 제외되므로 시민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본다. 반면 베카리아는 살인범 역시 여전히 사회 구성원,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지닌다고 본다.

⑤ 루소는 사형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회 방위를 통한 공동체 전원의 최대 행복이라고 본다. 살인범은 사형으로 목숨을 잃게 되므로, 사형을 통해 살인범을 교화하거나 개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칸트는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응당한 보복의 실현이라고 본다.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한 한낱 다른 선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9. 루소와 로크의 사회 계약론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루소는 주권 분할을 인정하지 않는다. 명심 또 명심!

[제시문 분석] 갑은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분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로크, 을은 사회 계약을 통해 모든 계약 당사자의 공적 의지를 하나로 모은 일반 의지가 탄생한다고 보는 루소이다.

[선지 분석] 가. 로크는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던 사적 처벌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할 때 국가가 형성된다고 본다. 로크가 생각하는 사회 계약은 각 개인이 자신의 사적 처벌권, 즉 자연법 집행권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나. 루소는 사회 계약을 맺는 순간 각 계약자의 사적 인격은 사라지고 그 대신 '하나의 도덕적이고 집합적인 단체'로서의 공적 인격이 형성된다고 본다.

다. 루소는 사회 계약이 만장일치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자기 자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라고 본다. 사회 계약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홉스, 로크 등 다른 사회 계약 사상가들도 인정하는 주장이다.

르. 루소의 입장이 아니다. 루소는 주권이 분할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10. 롤스, 마르크스, 노직의 분배 정의론 비교하기 정답 ④

COMMENT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롤스와 마르크스의 입장은?

[제시문 분석] 갑은 원초적 입장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실현되어야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롤스, 을은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정의로운 분배라고 보는 마르크스, 병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 간주하는 노직이다.

[선지 분석] 가. 롤스의 입장이 아니다.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은 오직 우연성이 배제된 가상적 상황에서만 공정하게 합의될 수 있다.

나.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반면 롤스와 노직은 자유주의 사상가로서 생산 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롤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이 개인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될 수는 없다고 본다.

다. 노직의 입장이 아니다. 노직은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르. 롤스는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마르크스는 국가가 없어야만 정의로운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 노직은 국가 차원의 복지 확대 정책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본다.

11.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기술에 대한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①

COMMENT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기본 입장을 잘 떠올려 보자.

[제시문 분석] 갑은 기술이 인간 사회와는 독립된 그 자체의 발

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보는 야스퍼스, 을은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 인간이 기술에 무방비 상태로 내맡겨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하이데거이다.

[선지 분석] ① 야스퍼스에 따르면 과학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진다.

② 야스퍼스는 과학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보면서, 과학 기술의 선악 여부는 인간의 목적 설정, 즉 기술이 만들어지는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③ 하이데거는 현대 과학 기술이 인간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여긴다고 본다. 이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과학 기술의 '탈은폐'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는 현대 과학 기술의 탈은폐 방식을 일종의 '닭달'로 보는데,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단순히 에너지를 제공하는 자원의 창고로만 파악하게 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인간 자체를 자연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뽑아내고 자신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바라본다. 즉 과학 기술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인간 자체를 자신의 통제 범위 안에 둔다는 것이 하이데거의 생각이다.

④ 하이데거는 기술의 본질이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⑤ 야스퍼스는 과학 기술의 선악 여부가 인간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는 과학 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통해 과학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인간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

12.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하기 정답 ①

COMMENT 니부어, 올해 수능에 나올지는 의문이지만 혹시 모르니 체크는 해 두자.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집단에서 이기심이 증폭되는 인간의 성향과 집단 간 불균등한 힘의 분배로 사회 부정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외적 강제력을 동원해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니부어이다. 니부어는 현대 사회에서 집단 간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개인의 양심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선지 분석] 가. 니부어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집단 간 힘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는 현실적인 힘의 논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 니부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강제력이 반드시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선의지의 통제를 벗어난 강제력은 더 큰 부정의를 초래한다는 것이 니부어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선의지는 강제력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 니부어의 생각이다.

다. 니부어는 도덕적인 개인들도 집단에 속하면 집단의 목적에 따라 비도덕적 행위를 하게 된다고 본다. 그는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인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에 비해 훨씬 심한 수준의 이기주의가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집단이 단순히 그 집단을 이루는 개인들의 합 이상이며, 집단들 간의 문제가 결코 개인들 간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르. 니부어는 폭력 사용이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13. 칸트와 벤담의 사상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공리주의에서는 행복의 원리가 곧 도덕의 원리이다

[제시문 분석] 같은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가 구분된다고 보는 칸트, 혹은 행복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가 일치한다고 보는 벤담이다.

[선지 분석] 가.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강요의 법칙이다.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동시에 자율의 법칙이기도 하다. 인간의 실천 이성이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입법하기 때문이다. 도덕 법칙이 강요의 법칙이자 자율의 법칙일 수 있는 것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도덕 행위자의 내적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칸트에 따르면 의무 의식이란 실천 이성이 부과한 명령, 즉 정언 명령을 따르려는 것이다.

다. 벤담에 따르면 도덕의 원리는 공리의 원리, 곧 최대 행복의 원리이므로 도덕 원리와 행복의 원리는 불일치할 수 없다.

르.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쾌락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본다. 벤담은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도덕적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행위자 본인의 쾌락은 감소할 수 있다고 본다.

14. 대중문화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말장난에 낚이지 않도록 주의.

[제시문 분석] 가상 편지의 저자는 대중문화가 사람들을 획일화 하면서 그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아도르노이다.

[선지 분석] ①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사회에 대한 대중의 비판 의식을 약화한다고 비판한다.

②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문화를 규격화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 생산물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하의 문화 생산물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다. 다만 아도르노에 따르면 그러한 차이는 소비자들을 분류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③ 아도르노에 따르면 현대의 문화 산업은 획일화된 문화만을 재생산한다. 이는 문화 산업이 새로움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이 대중을 어떠한 것도 욕구할 수 없도록 통제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문화 산업은 대중의 욕구를 통제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어떤 것도 욕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산업이 생산해 내는 획일적인 문화 상품들을 욕구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⑤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 아래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감상자에게 고유한 체험이 아니라 표준화된 소비 양식이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15. 싱어, 롤스, 소로의 시민 불복종 이론 비교하기 정답 ④

COMMENT 싱어의 시민 불복종 이론에 대한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제시문 분석] 같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싱어, 혹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연적 의무에 입각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롤스, 병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저항으로서의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소로이다.

[선지 분석] ① 싱어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 곧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사회 정의 실현이다.

② 싱어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다수의 정의관에 따라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다수의 정의관에 따라 전개될 수 있다고 본다.

③ 소로가 싱어와 롤스에게 제기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와 롤스는 모두 시민 불복종 이전에 부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소로는 부정의한 법에 대해 즉시 불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④ 롤스는 개인의 양심에 따른 양심적 거부와 다수의 정의관에 따른 시민 불복종을 개념적으로 구분한다. 반면 소로는 양심적 거부와 시민 불복종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⑤ 싱어가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싱어는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법률, 즉 다수가 동의하는 법률도 완전히 그릇된 것이라면 그에 대해 소수가 불복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6. 거주에 대한 볼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④

COMMENT 볼노브의 거주 윤리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혼란스러운 외부 세계와 안정적인 집' 정도이다. 나머지는 그때그때 제시문 독해로 해결해도 충분하다.

[제시문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집이 자기 존재의 중심이 되는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이라고 보는 볼노브이다.

[선지 분석] ① 볼노브는 집이 외부 공간과 구분되면서도 외부 공간을 향해 열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본다.

② 볼노브는 외부 공간을 위험과 희생이 따르는 긴장의 공간으로 간주한다. 반면 거주 공간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정되고 평안한 공간이라는 것이 볼노브의 생각이다.

③ 볼노브는 거주 공간이 외부 공간과 구분된다고 본다.

④ 볼노브에 따르면 거주 공간은 존재의 뿌리가 되는 핵심 영역으로, 진정한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⑤ 볼노브는 거주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17. 국제 평화에 대한 현실주의와 칸트의 입장 이해하기 정답 ③

COMMENT 오답 선지 네 개에 꽤 힘을 썼지만 정작 정답을 찾기는 쉬운 문항. 현실주의에서도 국제 평화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시문 분석] 같은 전쟁이 국익 실현의 수단으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서 국제 관계를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반대하는 현실주의 사상가, 혹은 국가 간 관계가 도덕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제 사회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칸트이다.

[선지 분석] ① 현실주의에서는 국가 간 세력 균형을 이루어 전쟁을 억제하면 일시적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주의에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평화가 영구 평화는 아니다. 국가 간 세력 균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칸트는 국내법과 국제법, 세계 시민법의 존재를 모두 인정한다. 칸트의 주장은 국제 평화를 위해 국제법과 세계 시민법을 제정하자는 것이지, 기존의 국내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③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의 최대 목표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평화 실현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면 평화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결국 최상의 가치는 자국의 이익 실현이다. 그러나 칸트는 자국의 이익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로 여기지 않으며 국가 간 관계가 도덕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실주의와 칸트 모두 국제 분쟁 해결과 평화 실현의 시도가 유의미하다고 본다. 다만 현실주의와 칸트가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⑤ 칸트만의 입장이다. 현실주의에서는 국제 사회가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야생과 같다고 본다.

18.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이해하기 정답 ②

COMMENT 하버마스의 기본 입장 정도는 챙겨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한다.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사회 구성원 간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하버마스이다. 그는 현 체제가 효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회적 의사 결정이 시민의 의사와 멀어지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공론장에 모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규범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선지 분석] ① 하버마스는 공론장에서의 평등을 중시한다. 돈과 권력 등의 외부 요소가 담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토의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주장이다.

②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는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③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여 토론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④ 하버마스는 여러 시민이 모여 담론을 통해 보편적 규범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본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개인의 이성만으로 보편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다고 보는 기존의 칸트 윤리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버마스는 칸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지만, 개인의 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담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칸트와 다르다.

⑤ 하버마스는 담론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그 규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19. 테일러, 싱어, 데카르트의 환경 윤리 이론 비교하기 정답 ③

COMMENT 테일러의 우선성의 원리. 이제는 학습할 때가 되었다.

[제시문 분석] 값은 모든 생명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생명 중심주의 사상이 테일러, 올슨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동물 중심주의 사상이 싱어, 병은 동물이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지닌 인간과는 달리 영혼이 없는 기계일 뿐이라고 보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이 데카르트이다.

[선지 분석] 가. 테일러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테일러가 제시하는 '우선성의 원리' 중 '최소 해악의 원리'는 인간의 부차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만일 인간의 부차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의 문명사회에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라면 인간의 부차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되, 동식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비인간 동물은 비록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데카르트는 오직 도덕적 행위 주체로 성립할 수 있는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싱어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싱어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할 의무의 근거가 동물이 지니는 수단적 가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싱어에 따르면 인간이 지니는 동물 배려 의무의 근거는 동물이 지니는 쾌고 감수 능력에서 비롯되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에 있다.

르. 데카르트는 오직 이성적 존재인 인간만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다고 본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영혼을 결여한 존재인 비인간 동물은 기계일 뿐이므로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지 못한다.

20. 싱어의 해외 원조 이론 이해하기 정답 ⑤

COMMENT 싱어가 볼 때 원조는 단지 타인과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일 뿐일까? 정답은 No.

[제시문 분석] 제시문의 사상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빈민들에게 원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싱어이다.

[선지 분석] ① 싱어는 개인과 국가, 국제기구가 원조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② 싱어는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원조는 국적을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빈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③ 싱어는 기본적으로 세계 시민주의의 입장에서 국내 부조와 해외 원조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다. 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 싱어는 자국민의 이익과 외국인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국민을 외국인보다 우선적으로 돕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외국인이 우선적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우선적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싱어의 생각이다.

④ 싱어는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원조의 목적이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하는 것이라고 본다.

⑤ 싱어가 원조를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일로 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원조가 원조 주체의 행복을 감소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싱어는 해외 원조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을 돕는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자의 삶을 보람과 성취감으로 채워 줄 것이므로 해외 원조의 결과로 원조 주체가 오히려 더 행복해 질 수도 있다고 본다.

* 확인 사항
○ 해설지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오.

출제진

- 혜음 수능윤리 연구소
- 유삼환(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 구은빈(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 권소연(성균관대학교 철학과)
- 김찬영(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 히든 출제진 2인(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검토진

- 강수영